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1년도 제30호

정운수의 오프사이드

심석희와 고 최숙현, 그리고 기억

정운수 스포츠평론가 · 성공회대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메달보다 도전과 열정 응원하는 분위기가 스포츠 인권의 토양”

오대성 KBS 기자

도쿄 패럴림픽

‘WeThe15’ 장애차별 종식 캠페인 함께 해요

박지혁 뉴시스 기자

스포츠학폭

“할 잡지 못하게 해 달라”...피해자 친형 ‘절규’ 들어줄까

정필재 세계일보 기자

대법 “20년 전 성폭력 저지른 코치, 피해자에 1억원 위자료 지급 정당”

정필재 세계일보 기자

COVID-19

“운동 할 공간 없어” 코로나19 확산세로 꽁꽁 묶인 체육시설

김지윤 중도일보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정윤수의 오프사이드 심석희와 고 최숙현, 그리고 기억

누구나 지나긴 삶의 행로에서 불가피한 찰과상을 입게 되고 쉽게 아물지 않을 그 상흔에 의하여 가급적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 생기곤 한다. 슬픈 장례식은 물론이요, 경사스러운 잔치날에서조차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누군가의 이름은 괄호 안에 갇히곤 한다.

감히 불러보건대 심석희 선수와 고 최숙현 선수. 나는 지금 두 선수의 이름을 아주 조심스럽게 부르는 중이다. 서퍽어치 주장의 근거로 삼기 위해 극심한 고통을 겪은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통증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감히 두 선수의 이름을 불러보는 것은, 그들의 고통이 지속되었던 시기와 2020 도쿄 올림픽에 참가한 대다수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나 훈련 기간과 겹치고, 그렇다면 'MZ세대의 활기찬 열정'으로 기록될 이번 올림픽의 환호성 사이로 혹시나 두 선수의 이름이 망각되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동계올림픽의 상징이었던 심석희 선수의 이름은 2019년 1월 이후 한동안 직접 호명되지 못하였다. 특정 사건을 가해자의 이름으로 명명해야 한다는 사회윤리에 따라 '빙상코치 가해사건'이라는 괄호 안에 잠시 머물러야 했는데, 선수 본인이 그 괄호를 벗겨냈다. 당당히 재판에 응하였고(가해 코치에게 10년6개월의 중형 선고) 선수 인권 보호와 스포츠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하였으며, 무엇보다 지난 5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하며 6개월 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자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가장 높은 자리에 새길 준비를 다 마쳤다.

심석희 선수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동안 스포츠계는 연쇄적인 폭행 및 성폭행 사건의 구조적 해결이라는 과제에 직면했고 그것이 지지부진하던 중에 최숙현 선수가 최악의 상황에서 마지막 선택을 했다. 가해자들은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징역 7년(감독)과 징역 4년(주장)에 처해졌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일부 지자체까지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는가 하면 스포츠클럽법, 체육인복지법, 스포츠기본법 등이 공포되었다.

도쿄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지도자와 선수들이 이 사건들과 전개 과정을 몰랐을 리 없다. 더욱이 올 초에는 '스포츠계 학폭' 사건들이 터졌기 때문에 대다수 젊은 선수들은 그 상황들이 요구하는 외적 압력이나 심리적인 긴장까지 견뎌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아마도 어떤 이름들은 거론해서는 안 될 이름이었을 것이다. 동시에 수많은 팬들도 지난 몇 해 동안 스포츠계의 더 나은 미래를 응원하였다. 그것은 스포츠에 대한 변화된 인식을 넘어 스포츠를 통한 한국 사회의 변화로까지 확산되었다. 몇 해 전만 해도 이른바 '청년 담론'의 키워드는 '잉여' '루저' '헬조선'이었다. 모두가 스펙 경쟁에 내몰려 에너지를 청년기에 다 쏟아부었는데, 결과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온 가족까지 열패감에 시달려야 했다. 그런 후에야 '함께 살자'는 위로와 권유가 확산되어 이제는 정치·사회 전 분야에 걸쳐 공존의 윤리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 규범을 제도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스포츠계의 연이은 폭력 사건과 그것의 고통스러운 해결 과정이었고, 이 상황에서 2020 도쿄 올림픽이 열렸다. 팬들은 선수들 모두가 마땅히 참가할 만한 능력과 그에 합당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목표를 성취한 선수를 격려할 뿐만 아니라 아쉽게 그친 선수에게도 위로를 보냈다. 스포츠가 당대의 사회적 감정을 즉각적일 뿐만 아니라 격렬하게 투영하는 장이라는 게 다시 입증되었다.

많은 언론들은 젊은 선수들의 활기찬 자기 표현이 'MZ세대의 독특한 개성'이라고 풀이한다. 그런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젊은 세대의 젊은 열정'은 동어반복이자 사회적 현상의 표면만 진부하게 스케치한 수식이다. 젊은 세대는 저절로 활기찬 게 아니다. 고통을 딛고 몸부림친 것이다. 그들의 현실이 '독특한 개성'을 맘껏 표출할 수 있는 상황도 아직은 아니다.

젊은 선수들의 활기찬 표현은 가혹한 생존 조건을 좀 더 윤리적이고 공정하게 변화시키려는 다양한 사회적 열망과 동반한 것이다. 그들이 선발되고 훈련하는 몇 해 동안 동시에 전개된 스포츠계의 고통과 그 변화의 몸부림에 맞물려 피어난 진흙 속의 연꽃이다. 그런 점에서 심석희 선수와 고 최숙현 선수는 스포츠계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적 가치 실현에 온당하고 절실하게 기여한 이름으로 반드시 기억되어야 한다.

인권위 “메달보다 도전과 열정 응원하는 분위기가 스포츠 인권의 토양”

국민들이 도쿄올림픽 출전 선수들의 ‘도전과 열정’ 자체를 응원했던 것이, 향후 스포츠 인권을 향상하는 데 좋은 토양이 될 것이라고 인권위가 평가했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오늘(20일) 성명을 내고 “도쿄올림픽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보여준 순수한 열정과 의지 그리고 이에 아낌없이 화답한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메달을 얻지 못한 종목에서도 선수와 국민들은 함께 경기 과정을 즐기고 공감하며 연대의식과 휴머니즘을 보여줬다”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 확산한다면 스포츠 인권이 깊이 뿌리내리고 굳건히 자라나기에 더 없이 좋은 토양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존재하는 성적지상주의에 따른 부작용은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국가에서 직접 소수의 우수 선수를 관리하고 육성하는 엘리트 체육 정책을 시행했고, 결과적으로 올림픽에서 세계 10위권에 드는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었다”면서도 “그 이면에 경기에서의 승리와 상위 입상이라는 목표가 선수 개인의 권리에 우선하는 성적지상주의의 부작용을 심각하게 겪은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운동부 지도자와 선수 사이, 또 선·후배 선수들 사이에 폭력적인 통제 문화가 폭넓게 존재한다는 사실이 지난해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빙상 국가대표 코치에 의한 선수 폭력과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2019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만들어 3년째 운영 중입니다. 현재까지 40여 건의 스포츠 인권침해 진정에 대해 시정이나 징계를 권고하고 의견을 표명하거나 고발 조치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24일부터 패럴림픽이 개최되는 만큼 장애인 선수들이 즐겁고 행복한 가운데 경기에 나설 수 있기를 기원하며, 국민들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로 선수들에게 힘을 보태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패럴림픽]

'WeThe15' 장애차별 종식 캠페인 함께 해요

NEWSIS

2020 도쿄패럴림픽 개막을 앞두고 지난 19일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종식하고자 하는 'WeThe15' 캠페인이 시작됐다.

'WeThe15'는 세계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약 12억명의 장애인을 위한 국제적인 인권 운동이다.

도쿄패럴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10년 동안 지속할 캠페인으로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국제장애연합(IDA) 등이 주도해 정책, 기업, 스포츠, 인권, 예술 분야 등의 여러 기구와 협업 중이다.

19일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보라색 조명 점등이 있었다.

일본 도쿄의 스카이트리,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 영국 런던의 런던아이 등 세계 주요 120여개 랜드마크가 모두 보라색 조명으로 가득 찼다.

장애 차별을 종식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인권과 존엄을 상징한다.

앤드류 파슨스 IPC 위원장은 24일 오후 8시 도쿄 신주쿠의 국립경기장(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도쿄패럴림픽 개막식에서 세계 2억5000만명의 시청자들에게 캠페인 영상을 소개한다.

대회 중에도 온라인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다. 다음달 5일 폐막식에선 국제 지도자들의 지지와 응원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공개한다.

대회 이후에도 공식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여러 채널을 통해 프로그램을 계속 공유할 방침이다.

국내에선 KBS가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전했다.

'세계 장애인들의 삶을 대표하고 변화하게 하는 최대 규모의 인권 운동이 되길 염원하고 있으며 가장 큰 규모의 소외 그룹을 위한 변화를 시작할 것'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던졌다.

'WeThe15' 측은 "향후 10년 동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낼 다양한 활동을 실행할 것"이라며 "자신의 잠재력을 실행하고, 능동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는 걸 방해하는 사회적, 제도적 장벽을 무너뜨리길 기대한다"고 했다.

“활 잡지 못하게 해 달라” 피해자 친형 ‘절규’ 들어줄까



최근 경북 예천의 한 중학교 양궁부주장이 쓴 연습용 화살에 맞은
후배선수의 옷(왼쪽)과 등쪽에 난 상처. KBS제공

경북 예천의 중학교에서 양궁부 선배가 후배에게 활을 쏘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당국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고 가해학생의 처벌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어떤 처벌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가해학생은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22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A씨는 대한양궁협회 홈페이지와 청와대 청원 게시판 등에 학교폭력 피해를 겪었다는 글과 함께 “가해자들이 절대 활을 잡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피해자 친형의 강력처벌 호소

학교폭력 피해자의 친형이라고 밝힌 A씨는 “동생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양궁을 해오던 양궁을 좋아하는 아이였지만 5학년으로 올라올 때쯤 주변의 선배에게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며 “바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때 가해자를 다른 학교로 보내는 것으로 합의했다”면서도 “예천에서 양궁부가 있는 학교가 딱 한 곳이라 중학교에 가서도 만나는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최근 우연히 동생의 등 쪽을 보게 됐는데 큰 상처가 생겨있더라”며 “아무것도 아니라던 동생이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지났을 때쯤 ‘양궁부 선배가 자신에게 활을 쏘았다’고 말해줬다”고 강조했다. A씨는 “처음엔 사과한다면 합의를 해 볼 상황이었지만 상대편 부모님들이 적반하장으로 나와 부모님께서 화가나 언론에 제보한 상황이었다”며 “(가해자 측이)만약 일을 크게 만들면 양궁부가 해체된다는 명분으로 합의를 요청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활로 제 동생을 쏜 살인미수범에게는 다시 활을 잡을 권리가 없다”며 “가해자가 절대 다시는 활을 잡지 못하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경북교육청, 27일처벌수위 결정

이 사건은 해당 중학교는 논의를 통해 이번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결론 내렸다. 경북교육청은 27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경 경북 예천군 한 중학교에서 양궁선수들이 훈련 도중 과녁을 향해 활을 쏘 때 3학년 B군이 대기 중인 1학년 C군을 향해 활을 쏘았다. C군은 어깨에 상처를 입었다.

학생부장은 사건 다음날인 5일 B군과 면담한 결과 “B군은 평소 과녁을 향해 쏘는 활시위가 아니라 대기 상태로 활시위를 당겨 장난을 친 것”이라며 “C군의 어깨에 맞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C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치료를 받는 것보다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린다”며 “C군이 초등학교 때도 괴롭힘이 있었고, 훈련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코치가 자리를 비우고 어린 선수들끼리 훈련을 시켜 사고를 더욱 키웠다”고 지적했다.

예천경찰서 역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미 수사에 착수했으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측 양쪽을 모두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 학교폭력 가해자, 어떤 불이익 받나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생선수들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 6월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들의 논의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등으로 1년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대표로 뛠 수 없다. 프로스포츠 구단에 입단할 때도 학교폭력 이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써야 하고 고교생활기록부도 제출해야 한다. 실업팀 표준운영규정에도 학교폭력 시 선수선발 결격 사유와 제재 근거를 담아 제시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심한 경우 ‘경기부의 단원이 될 수 없고,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한다.

대입 체육특기자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것도 확대한다. 2020학년도 입시부터 체육특기자를 선발할 때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관련 기재 내용을 반영하는 대학은 3곳이 전부다. 학교폭력 가해사항을 입시에 반영하는 대학은 내년부터 대학스포츠협의회가 주관하는 재정지원사업 평가 때 가점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27일까지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 6만여 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폭력피해 전수조사 정례화를 통해 지속해서 폭력 사례를 파악하고 엄중히 대응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을 근절하고 학생선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법 “20년 전 성폭력 저지른 코치, 피해자에 1억원 위자료 지급 정당”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성폭력 후유증으로 장애 진단을 받는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전직 테니스 선수 김은희씨(30)가 가해자인 테니스코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억원의 위자료 지급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9일 확정했다.

김씨는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01년부터 이듬해까지 4차례에 걸친 A씨의 성폭력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 김씨는 2018년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쟁점은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였다. 민법은 피해자가 손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단기소멸시효),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장기소멸시효)이 경과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A씨 측은 마지막 성폭력 범죄가 2002년 8월 발생한만큼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A씨를 우연히 마주친 뒤 PTSD 진단을 받은 2016년 6월을 손해발생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성폭력 범죄로 인한 후유증 피해를 진단받은 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성범죄가 발생한 직후 발현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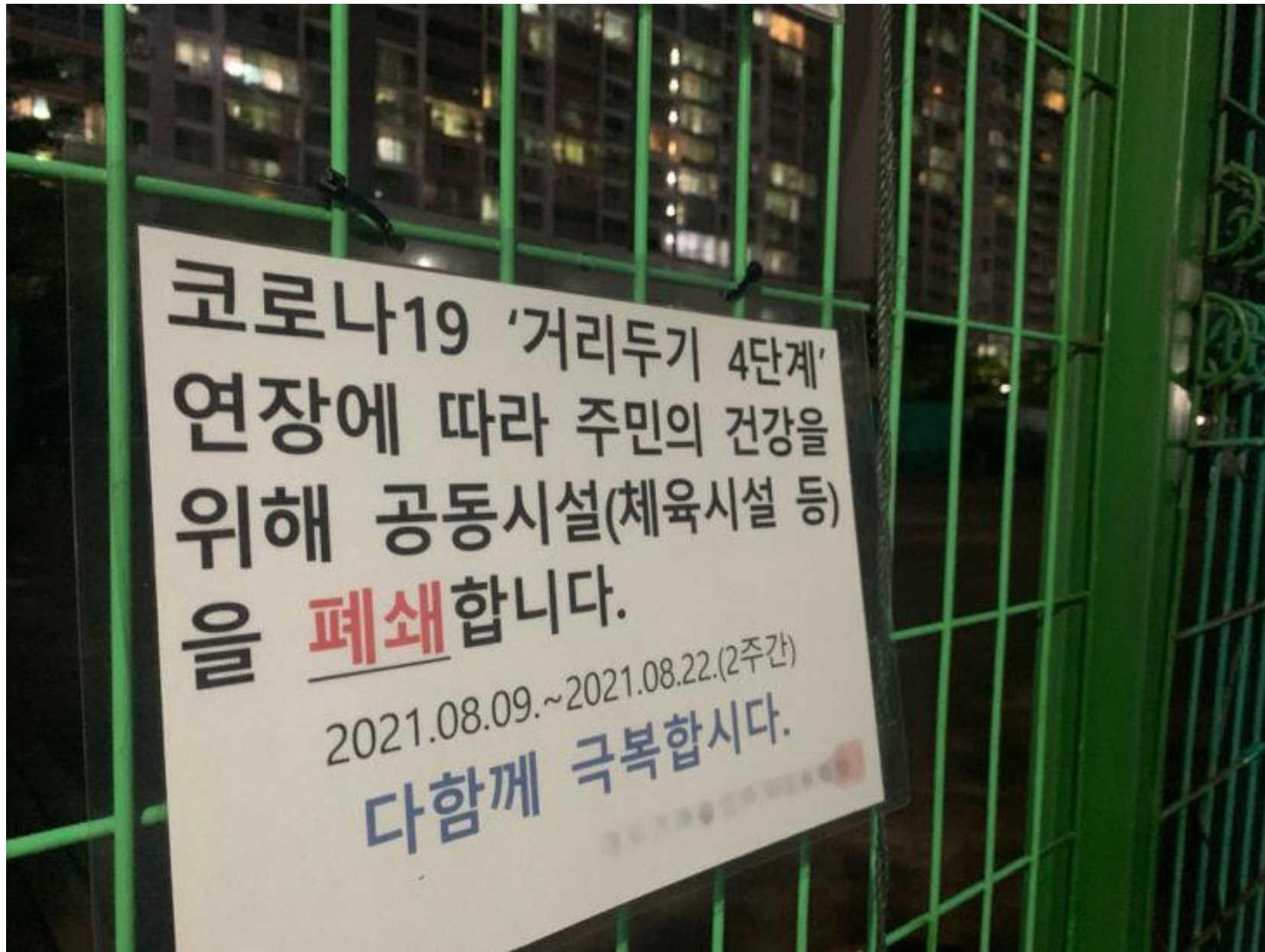
대법원은 성범죄 발생 일이나 일부 증상이 나타난 날짜를 손해가 발생한 시점으로 보게 되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는 (성범죄 발생) 당시에는 장래의 손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장래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해자가 피해 당시 아동이었거나 가해자가 친족·선생님·코치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손해 발생 시점을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즉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운동 할 공간 없어”

코로나19 확산세로 꼼꼼 뭉뚱 체육시설



이용 중단 안내판과 함께 굳게 닫혀있는 야외 체육시설. 김지윤기자

"몇 달째 운동연습을 못하고 있었는데, 거리두기까지 격상되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대전에서 생활체육대회를 목표로 동호회 활동을 하던 A씨는 반년이 넘게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대부분의 체육시설이 전염병 확산 우려로 문을 닫아 연습할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체육 활동이 사실상 전면 중지되면서 지역 체육민들의 답답함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한 달 넘게 이어졌던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2주 더 연장되면서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전망이다.

20일 대전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거리두기 연장으로 한밭체육관, 한마음생활체육관, 송강실내테니스장 등 26개의 공공체육시설의 임시 휴장이 연장됐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주민센터 체육시설은 2년 넘게 문이 닫힌 상태다.

유성종합스포츠센터, 도솔다목적체육관 등의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센터로 운영되면서 체육 목적의 사용이 중단된 상태다.

야외 체육시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운동은 여러 명이 같은 장소에 모여야 하기 때문에 4인 이상 집합 금지에 걸려 야외에서조차 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생활체육민들은 운동할 공간 대부분을 잃어 수개월 넘게 운동을 '올 스톱'한 상태다.



20일 오후 8시께 방문한 서구의 한 야외 배드민턴장. 김지윤기자

20일 오후 8시께 대전 서구의 한 배드민턴장을 방문하니 아무도 없는 텅 빈 경기장만 보일 뿐 사람들을 찾을 수 없었다.

원래는 오후 시간이 되면 주민들과, 생활체육인들이 모여 운동을 즐기던 장소였다.

하지만 거리두기 격상으로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안내판과 함께 자물쇠로 굳게 잠겨있었다.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B씨는 "동호회분들과 자주 모여 운동을 했지만 지금은 연습 자체를 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하니 우울감이 커진다. 전염병 확산 문제인 건 알겠으나 언제까지 체육인들 공간을 막을지 미지수"라며 "'짧고 굵게'라는 방역 지침과는 달리 너무 길어지고 있는 것 같다. 하루빨리 감염 확산세가 줄어 다시 운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만났습니다]① "엘리트 스포츠 한계...누구나 즐길 환경 만들어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092246629149288&mediaCodeNo=258>

[클로즈업 북한] 올림픽 중계는 녹화로...北 스포츠 정치 실패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61386&ref=A>

여성 스포츠 선수들의 꿈이 사라졌다...텔레반 장악한 아프가니스탄 여성 선수들 비탄에 빠져

<https://www.thebilliards.kr/news/articleView.html?idxno=12339>

[방구석 극장전]국위선양 너머 스포츠의 가치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6&artid=202108131457141>

"홀당 70억? 사느니 짓겠다"...코로나 호황에 골프장 몸값 치솟았다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1/08/804627/>

코로나에 골프 인기 높아지자... 골프채 만들 재료 귀해져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818/108593494/1>

코로나 비만-우울 떨치는 '30분 홈트'

<http://kormedi.com/1351157/%ec%bd%94%eb%a1%9c%eb%82%98->

[http://kormedi.com/1351157/%ec%bd%94%eb%a1%9c%eb%82%98-](http://kormedi.com/1351157/%ec%bd%94%eb%a1%9c%eb%82%98-%eb%b9%84%eb%a7%8c-%ec%9a%b0%ec%9a%b8-)

[http://kormedi.com/1351157/%ec%bd%94%eb%a1%9c%eb%82%98-](http://kormedi.com/1351157/%ec%bd%94%eb%a1%9c%eb%82%98-%eb%b9%84%eb%a7%8c-%ec%9a%b0%ec%9a%b8-%eb%96%a8%ec%b9%98%eb%8a%94-30%eb%b6%84-%ed%99%88%ed%8a%b8/)

[편집국에서] 도쿄올림픽, 스포츠 패러다임을 바꿨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81518474155686>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